

		보 도 자 료		
		배 포 일	2021. 10. 8.(금) 총 5매(본문 2, 참고 3)	
담당 부서	해양생태과	담당 자	• 과장 이재영, 사무관 장유경, 주무관 황유영 • ☎ (044)200-5310, 5315, 5317	
	국립수산물과학원		• 고래연구센터장 최석관, 연구관 유준택, 연구사 김현우 • ☎ (052)270-0900, 0920, 0960	
보 도 일 시		2021년 10월 12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1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백령도 점박이물범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?

- 점박이물범 회유 경로·시기 연구를 위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공 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의 회유 경로와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백령도 연안에서 점박이물범 1마리에 인공위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방류했다고 밝혔다.

2006년부터 점박이물범 서식실태조사를 해오고 있는 국립수산물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사전허가 등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8월 백령도 물범 바위에서 생후 2년 가량의 어린 물범 한 마리를 생포*한 후,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치추적장치를 등에 붙이고 즉시 방류하였다.

* 점박이물범은 해양보호생물로 보호받고 있을 뿐 아니라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의 사전허가를 받아 생포조사 수행

위치추적장치 부착 연구는 대상종을 죽이지 않고 회유 경로와 시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생태연구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나, 경계심 많은 야생동물을 생포하기가 까다롭다는 것이 문제였다. 우리나라에서도 연안 구조물에 갇히거나 다친 물범을 구조하여 장치를 붙인 후 방류한 적은 있었으나 야생개체 생포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 조사팀은 매년 정기적으로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을 관찰했기 때문에 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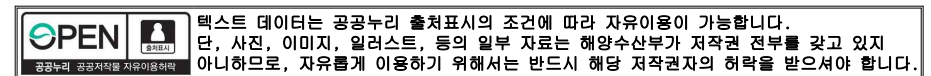
선박에 대한 점박이물범의 경계심이 느슨해질 수 있었고, 이를 틈타 신속하게 접근하여 야생 점박이물범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이다.

방류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의 위치추적 관찰 결과, 점박이물범은 여전히 백령도 연안의 남과 북을 왕래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. 점박이물범의 본격적인 북상회유*가 시작되는 10월 말~11월 초에는 백령도를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.

* 점박이물범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단 서식지가 확인되는 기각류로, 겨울철에 중국 랴오둥만에서 새끼를 낳고 봄부터 늦가을까지 서해로 남하해 먹이활동 및 휴식을 함


이번 인공위성 위치추적장치 부착으로 국내 백령도 점박이물범의 개체별 활동범위는 물론, 회유 경로와 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지난 2013년에는 울산에서 방류된 점박이물범의 위치 추적을 통해 우리나라 연안에 나타나는 점박이물범이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국 보하이만까지 이동하는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바 있다.

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“이번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는 평균 250일까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물범이 겨울을 나기 위해 랴오둥만으로 이동하여 봄에 다시 백령도로 남하하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확대하여 점박이물범 보전을 위한 특성 파악에 힘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
참고 1

점박이물범 특징

종명	점 박 이 물 범
사진	
영명	Spotted seal
학명	<i>Phoca largha</i>
크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체 : (몸길이) 수컷 1.7m, 암컷 1.6m, (체중) 80~130kg ○ 출생 시: 평균체장 80cm, 평균체중 10kg(평균수명 30~35년)
분포	○ 황해, 동해, 오후츠크해, 캄차카반도, 베링해, 알래스카 연안에 서식하며 국내는 백령도가 가장 큰 서식지로 300여 마리가 여름을 보냄
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몸 색깔 : 회색이나 황갈색 몸체에 검은색과 점무늬가 산재 ○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은 황해 개체군으로 1월~3월 중국 보하이만·랴오둥만 유빙(遊氷) 위에서 새끼를 낳고, 봄에 남하를 시작하여 산둥반도와 백령도에서 여름을 지낸 후 늦가을부터 다시 보하이만·랴오둥만으로 이동 ○ 주로 어류와 두족류를 먹이로 삼음 ○ 1940년대 황해 전체에 약 8,000마리가 서식했으나 가축·약재·고기 등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남획으로 1980년대에 2,300마리로 급감하고 2000년대 이후 약 1,500마리 미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산
비고	「해양생태계법」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(해양수산부, 2007)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(환경부),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(문화재청)

① 점박이물범 사진



② 점박이물범 생포 및 장치부착, 방류



참고 2

점박이물범 예상 회유경로

